서울신대 발표

**웨슬리가 설교자들에게 요청한 내용을 통해 본 웨슬리 신학의 특성**

**<들어가는 말>**

2020년에 출판한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쓰면서 발견한 사실들, 그리고 다 쓰고 난 후에 깨닫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웨슬리가 동료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에게 요청한 지성적 수준,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조언한 내용들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설교자가 된다는 것, 웨슬리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가르침을 주기때문에 동료 설교자와 신학자들과 나누면서 앞으로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서론적 고찰**

먼저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웨슬리 신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 일곱가지로 살펴 본 후 그러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웨슬리와 설교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웨슬리 신학은 반드시 그의 삶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 웨슬리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고, 본인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기때문이다. 즉 그의 모든 신학적 논리와 주장은 삶으로 표현되었고, 삶의 현장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성경적 논리로 설명한 것이 그의 신학이기때문이다. 웨슬리의 가장 위대한 점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딤전 4:16) 자신의 설교에서 자신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67년 연회에서 동료 서교자들에게 “Let us all be men of one business. We live only for this, ‘to save our own souls, and them that hear us” (우리는 오직 한가지 일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오직 이 한가지 일, 즉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1]](#footnote-1) 1769년과 1773년 연회에서 그 내용은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To devote ourselves entirely to God, denying ourselves, taking up our cross daily, steadily aiming at one thing to save our own souls and them that hear us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한가지 일,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2]](#footnote-2)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신학을 그의 삶과 동 떨어져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야 말로 웨슬리가 가장 경계한 신학이고, 웨슬리 신학을 가장 공허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둘째, 웨슬리 신학을 편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웨슬리 신학에 대한 왜곡을 야기시킬 수 있다. 웨슬리 신학을 오직 성령의 역사 중심으로 혹은 선교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 또한 웨슬리 신학을 지나치게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신학으로 부탁시키기 위해 전통 신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 웨슬리 신학 안에는 다양한 신학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종합을 이루었는지,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 웨슬리의 삶과 신학은 열광주의적이지만 열광주의자라고 규정할 수 없고, 신비주의적이지만 신비주의자라 할 수 없고, 성령의 신학자라고 규정하기에는 그는 지나칠정도로 이성주의자였다. 웨슬리가 마치 구원의 순서 (Order of salvation)를 정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이나 웨슬리 신학을 “사변형의 신학” (Quadrilateral Theology) 또는 “신인 협동설” (Synergism)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더 나아가 기독교 신학 전반을 이해하는 최고의 신학수업이 되는 장점이 있다. 웨슬리 신학 안에는 성경 언어와 초대 기독교, 교부신학, 15세기까지의 가톨릭 신학, 16세기 루터와 칼빈에 의해 발전한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16-17기를 지나면 발전한 영국의 국교회 신학, 18세기의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발전한 유럽적 신학, 그리고 19-20세기 현대 신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웨슬리 신학을 다른 신학적 전통으로부터 분리하여 공부함으로써 웨슬리안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반 웨슬리안적 신학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웨슬리는 시대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하면서 당대 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그의 신학은 그 시대의 문제를 꿰뚤어 보면서 지성인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영향력 있게 제시했기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신학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18세기 웨슬리 신학을 오늘날 반복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것 또한 심각한 반 웨슬리적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웨슬리 신학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밖인 야외에서, 그런가 하면 영국의 안과 밖에서 시간적 -공간적 과정을 지나며 태동하고 발전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하고, 모순에 직면하기도 하고, 수많은 비판을 수용하며 수정되고 발전한 신학이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을 어느 특정 주제나 시점에 한정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올더스게이트 체험” (Aldersgate Experience)에 대한 이해이다. 이 때가 웨슬리가 35세가 되던 해인데 그 후 웨슬리는 53년을 더 살고 죽었다. 그런데 마치 그의 신학이 “올더스게이트 체험” (Aldersgate Experience)을 통해 결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등이다. 극단적 혹은 편협한 웨슬리안들에 의한 웨슬리 신학에 대한 왜곡 또한 신중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웨슬리의 삶과 신학이 결코 완성된 신학도 아니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점과 배울 것이 많은 신학이지만 한계 혹은 단점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신학이 마치 확실하게 결정된 것처럼 혹은 가장 우수한 신학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극복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 알아가는 것이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웨슬리가 발전시킨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가 남겨둔 주제를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키면서 웨슬리 신학을 발전시키고 또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웨슬리 신학 방법론이 될 것이다.

여섯째, 웨슬리는 자신이 야외설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때 국교회 내 안수받은 사제들이 많이 자신의 활동에 동참할줄 알았는데, 간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외에 5-6명에 불과했기때문에 수만명, 수십만명이 되는 메도디스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설교자가 없다는 문제로 평생을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무자격 설교자들을 교육시켜서 설교자로 임명하거나 여성 사역자들을 임명하는 등 물의릉 일으켰고, 더 나아가 국교회 내에서 주교 (Bishop)들에게만 주어진 안수의 권한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편법 안수를 결행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웨슬리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약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웨슬리는 특히 설교자들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웨슬리 신학은 또한 발전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웨슬리가 그 바쁜 야외설교 일정 중에도 얼마나 어린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메도디스트들이 웨슬리안 신학 중에서 잃어버린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어린이들을 향한 웨슬리의 열정과 신학적 통찰과 목회학일 것이다. 1768년 연회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을 매우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지 않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한 시대에 국한되고 (a thing of only one age) 말 것이다. 누가 이 시점에 일할 것인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시작되는 일을 열망하도록 하라 (But what can we *do for the rising generation*? Unless we can take care of these the present revival of religion will be *res unius aetatis*. It will last only the age of a man. Who will labour herein? Let him that is zealous for God and the souls of men begin now).

1. 어린이들이 좋아하든 말든 모든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그들과 시간을 보내라 (Spend an hour a week with the children in every large town, whether you like or no).
2.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들과 대화하라 (Talk with them every time you see any at home).
3.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라 (Pray in earnest for them).
4. 각 가정에서 모든 부모들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으로 격려하라 (Diligently instruct and vehemently exhort all parents at their own houses).
5.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설교하고 특히 여름에 킹스우드 학교에 대해 언급하며 설교하라 (Preach expressly on this, particularly at mid-summer when you speak of Kingswood).[[3]](#footnote-3)

웨슬리는1783년 5월 말에 “가정 종교에 대하여” (On Family Religion) 설교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언한 본문(수 24:15)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이 악해지는 것은 부모들의 잘못이나 무관심 때문이라” (the wickedness of the children is generally owing to the fault or neglect of their parents)고 했다.[[4]](#footnote-4) 또한 그해 7월에는 잠언 22장 6절 말씀, 즉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아이들 교육에 대하여”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설교했다.[[5]](#footnote-5) 1784년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On obedience to parents)와 1785년에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On Obdience to pastors)를 알미니안 잡지에 발표했는데 부모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6]](#footnote-6) 당시에 국교회 사제 중에서 웨슬리만큼 철저하게 기독교를 가정종교로 규정하며 자녀교육을 강조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과 당시 웨슬리가 80대에 접어든 후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 **대학 졸업 후 20대 때의 웨슬리**

대학을 졸업한 후 성직자 안수과정을 준비하고 있던 아들에게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Samuel Wesley)는 1725년 첫달 26일에 편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원어로 읽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번역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당시에도 히브리어 성경에 챨디 (Chaldee), 70인역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Vulgate)을 함께 편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은 아들에게 히브리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을 읽으면서 변형된 점과 다른 점을 구분하라고 했다. 더 나아가 모세오경을 읽되 히브리어 성경은 사마리아 역 (Samaritan text)을, 헬라어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역(the Alexandrian)과 바티칸역(the Vatican)을 비교하며 읽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작년에 4번 읽었고 이제 5번째 읽을 예정이라고 했다. 웨슬리는 성경 언어와 주석에 극성인 아버지를 따라 성서 히브리어와 성서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에 능통했던 것이다.[[7]](#footnote-7)

1726년 3월에 링컨 대학의 펠로우 (a Fellow of Lincoln College)로 선출된 후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727년 2월 14일 날 M.A. (Master of Arts)학위를 받았는데, 그 과정으로서 라틴어로 논문을 쓰고 강의도 했다. 웨슬리가 쓴 세 편의 논문은 첫째, “동물들의 영혼에 대하여” (*De Anima Brutorum*, on the souls of animals); 둘째,“율리우스 시저에 대하여” (*De Julio Caesare*, on Julius Caesar),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De Amore Dei*, on the love of God)였다. 안타깝게도 그 때의 논문은 남아있지 않아 그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제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웨슬리는 신학 뿐만 아니라 철학과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8]](#footnote-8)

1725년 3월 26일에 쓴 일기에 의하면, 자신은 여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고, 쓸데 없는 대화에 끼어들거나 가치 없는 책들을 읽거나 게으름의 문제 등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런 상황이 되면 즉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피하겠다 (immediately going into company)고 했다.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겠다는 말로 마쳤다. [[9]](#footnote-9)

1725년 8월 19일 조제안수를 받았는데, 사제 안수를 받을 때까지 웨슬리는 오직 경건에 힘쓰며 국교회 사제가 되기에 필요한 모든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국교회 내의 역사, 철학, 신학, 설교집 등을 읽었다. 그 해가 가기 전 12월 1일에 쓴 일기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 중에서 어긴 것 (breach of vows)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했던 것 중에서 지키지 않은 것 (breach of promise)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 (resolution)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기를 쓴 것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0]](#footnote-10) 1726년 1월 29일 일기에 의하면 자신이 지난 번에 해결책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다시 읽고, 한 달에 한번씩 금식하겠다고 했다. [[11]](#footnote-11)

사실 웨슬리는 대학생 시절부터 부지런한 삶을 열망했지만 게으름 (idleness)이란 적은 의외로 강력하게 그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725년에 읽은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 (*Holy Living*)의 5페이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자신의 일기장이 아닌 할아버지의 작은 일기장에 (in his grandfather’s little diary-book) 기록해 두고 은밀히 보면서 자신을 일깨우곤 했다:

게으름은 소돔의 죄요 죄의 딸들이다. 그리고 게으름은 사실 살아 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나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세상의 변화나 필요에 관심이 없고, 해충이나 늑대와 같이 시간과 양식을 낭비하며, 선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거나 망할 뿐이다. 그들은 쟁기질도 않고, 짐을 나르지도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무익하거나 해가될 뿐이다 (Idleness is called ‘the sin of Sodom and her daughters,’ and indeed is ‘the burial of a living man’; an idle person being so useless to any purposes of God and man, he is like one that in dead, unconcerned in the changes and necessities of the world; and he only lives to spend his time and eat the fruits of the earth; like a vermin or a wolf, when their time comes they die and perish, and in the meantime do no good; they neither plough nor carry burdens; all that they do either is unprofitable or mischievous).[[12]](#footnote-12)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했는데, 5시에 일어나는데 성공했고, 1728년 언젠가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13]](#footnote-13) 그 후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첫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한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드는 삶을 죽을 때까지 지속했다.[[14]](#footnote-14) 웨슬리가 석사 (M.A.)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1726년 3월에 링컨대학의 펠로우(a Fellow of Lincoln College)로 선출된 후 9월 24일에 경건과 학문을 구체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주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일 오전과 오후: 경건서적

월요일: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

화요일: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

수요일: 논리학과 윤리학 등

목요일: 히브리어 문법 (Hebrew Grammar)과 아랍어 문법 (Arabic Grammar)

금요일: 형이상학과 자연철학

토요일: 웅변과 시학 (Oratory and Poetry).[[15]](#footnote-15)

정리해 보면 한 주간 안에 네가지의 외국어, 즉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랍어를 공부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적들을 읽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 펠로우로서 실행한 계획표이지만, 그정도의 경건과 학문을 위한 일정은 대학생때부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웨슬리가 대학생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언어와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속했는지 알 수 있다.

1. **사제 안수를 받은 후**

존은 1727년 8월부터 1729년 11월 대학에 복귀하기까지 2년 이상 주로 루트(Wroote) 교구에서 아버지를 도와 부사제(curate)로 일했다.아버지는 어느덧 66세가 되어 엡워쓰와 루트 두 교구를 돌보기에 힘들 때 아들이 가서 도왔다.[[16]](#footnote-16) 부사제 사역을 감당하던 중 웨슬리는 잠시 옥스포드로 와서 1728년 9월 22일에 2년 전에 조제 안수를 하였던 존 포터에 의해 사제 (priest)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과정에서 당시의 모든 국교회 성직자들이 하던대로 왕이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국교회의 교리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했다.[[17]](#footnote-17) 1724년에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성직 안수 과정에 들어가 1725년 9월 19일 조제 안수를 받았고, 26년 3월 17일에 펠로우가 되었고, 27년 2월 14일에 M.A. (Master of Arts) 학위를 받고, 마침내 28년에 사제 안수를 받았다. 4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를 돕는 부사제 사역도 감당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냈다.[[18]](#footnote-18)

그런데 사역 현장에서 웨슬리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1725년부터 1729년까지 열심히 설교했지만, 나의 설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나의 설교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지도 못했고 복음을 믿게 만들지도 못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From the year 1725 to 1729 I preached much, but saw no fruit of my labour. Indeed, it could not be that I should; for I neither laid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nor of believing the gospel, taking it for granted that all to whom I preached were believers, and that many of them needed no repentance).[[19]](#footnote-19)

당시 루트는 영국 동북쪽에 위치한 외진 곳으로 인구도 300명이 안되는 농촌 마을로서 습지로 둘러쌓여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다.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지적인 설교자의 생각과 용어와 루트교구의 청중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 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매우 실제적인 신학적 고뇌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튜터가 부족하니 속히 학교로 복귀해 달라는 몰리 학장 (Dr. Morley)의 연락을 받고 1729년 11월 22일에 연로한 부모님의 아쉬움을 뒤로한채 학교로 복귀했다.[[20]](#footnote-20)그러나 목회 현장에서의 당황스러운 경험은 그 때까지 자신만의 경건에 집중하던 웨슬리로 하여금 국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 기독교 복음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되었다.

1. **40대의 웨슬리: 야외설교의 현장에서 설교자들에게 요청되는 지식**

1744년은 6월 25-29일까지 런던에서 최초의 메도디스트 연회가 개최된 해이다. 웨슬리 형제를 비롯하여 6명의 목회자와 4명의 평신도 설교자들까지 총 10명이 참석했고, 챨스가 설교했다.[[21]](#footnote-21) 연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 즉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What to teach?); (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How to teach?); 그리고 (3)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우리의 교리와 훈련과 행동을 어떻게 생활화 할 것인가? (What to do, i.e., how to regulate our doctrine, discipline, and practice?를 묻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자신들은 교리의 정립보다는 교리를 잘 가르치고 생활화하는 것임을 분명히했음을 알 수 있다.[[22]](#footnote-22)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초의 메도디스트 연회에서 모든 설교자들이나 청지기 등 리더들이 읽을 도서목록 (What books may an Assistant read?)을 제시했다는 것이다.[[23]](#footnote-23) 웨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지성을 함양시켜야하는지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 목록은 다음 해 연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 때 살펴보기로 하자.

1745년 8월 1-3일까지 진행된 제 2 회 브리스톨 연회에서 리더들이나 설교자들이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런던과 브리스톨과 뉴캐슬에 비치해 둘 도서 목록을 제시했는데, 지난 해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즉 다양한 전문도서들을 9가지 항목으로 제시했는데 오늘날 세분화된 이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문과 시문을 나누어서 11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200주년 총서의 편집자 헨리 랙 (Henry Rack)은 독서 목록의 저자와 제목을 밝혀주었는데 필자는 많은 부분 그의 설명에 의존했다.[[24]](#footnote-24) 하지만 대부분 이미 그린의 독서 목록에서 살펴 보았기때문에 축약형으로 제시된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만 각주로 설명을 첨부했음을 밝힌다.

1. **Divinity, Practical and Doctrinal (실천적-교리적 신학)**
2. The Bible
3. Our Tracts[[25]](#footnote-25)
4. Abp. Ussher’s
5. Boehm’s *Sermons*
6. Nalson’s
7. Franke’s *Works*
8. Pascal’s *Thoughts*
9. Beveridge’s *Thoughts*
10. Pearson on *the Creed*
11. Fell on *the Epistles*.[[26]](#footnote-26)
12. Dr. Gell’s *Works*
13. **Physick (의학)**
14. Drake’s *Anatomy[[27]](#footnote-27)*
15. Quincy’s *Dispensatory[[28]](#footnote-28)*
16. Allen’s *Synnopsis[[29]](#footnote-29)*
17. Dr. Cheyne’s *Works*
18. **Natural Philosophy (자연철학)**
19. *Nature Delineated[[30]](#footnote-30)*
20. Miller’s *Gardener’s* *Dictionary Abridged*
21. **Astronomy (천문학)**
22. Whiston’s *Astronom[ical]* *Principles*[[31]](#footnote-31)
23. **History (역사)**
24. *Universal History*[[32]](#footnote-32)
25. Poetry (시 문학)
26. Spenser
27. Sir John Davies[[33]](#footnote-33)
28. Milton
29. Our Hymns and Poems
30. **Latin Prose (라틴어 산문)**
31. Sallust (86 – 35 B.C.)
32. Caesar, Cornelius Nepos, Velleius Paterculus,[[34]](#footnote-34) Littleton’s *Dictionary*
33. Tully, *Philosophica*, and *De Officiis[[35]](#footnote-35)*
34. Cypriani *Opera[[36]](#footnote-36)*
35. Castellio’s *Dialogues*.[[37]](#footnote-37)
36. Erasmi *Selecta[[38]](#footnote-38)*
37. Augustin’s *Confession*
38. **Latin Verse (라틴어 시문)**
39. Terence
40. Virgil
41. Seleccta Horatii, Juv[enal], Pers[ius], Mart[ial]
42. Vida[[39]](#footnote-39)
43. Casimir[[40]](#footnote-40)
44. Buchanan[[41]](#footnote-41)
45. **Greek Prose (헬라어 산문)**
46. Greek Testament, Hederici Lexicon
47. Plato’s Select Dialogues[[42]](#footnote-42)
48. Xenophon’s *Cyropoedia[[43]](#footnote-43)*
49. Epictetus
50. Antonius, *de se ipso*[[44]](#footnote-44)
51. Ignatius, etc.[[45]](#footnote-45)
52. Ephraim Syrus.
53. Macarius, Chryssostom, *de Sacerdotio*[[46]](#footnote-46)
54. **Greek Verse (헬라어 시문)**
55. Homer’s *Iliad*
56. *Epigrammatium Delectus*[[47]](#footnote-47)
57. Duport’s *Job*, etc.
58. **Hebrew (히브리어)**
59. The Bible. John (Johannes) Buxtorf (1564-1629).[[48]](#footnote-48)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읽도록 했는데 특히 원어로 읽을 것을 장려했다. 둘째, 언어는 영어는 물론, 라틴어, 불어로 쓰인 책들을 원문 그대로 혹은 번역본으로 읽도록 장려했다. 셋째, 신학 뿐만 아니라 의학, 문학,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읽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들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했다.

1766년 리즈 연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웨슬리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설교자들은 주 중에는 부지런히 심방을 하고,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면서도 게으르지 말고 오직 지식을 얻는데 힘쓰라고 강권했다 (Be diligent. Never be unemployed a moment). 그리고 새벽기도를 마친 후 오전 내내 아니면 하루에 최소한 5시간은 유익한 책을 읽는데 사용하라고 했다. 만약 설교자가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 (I read only the Bible)고 한다면 그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말라” (you need preach no more)고 경고했다.[[49]](#footnote-49)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Gaining knowledge is a good thing; but saving souls is a better)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50]](#footnote-50)

웨슬리의 말년인 1790년 11월 8일에 동역자 조지 홀더 (George Holder)에게 편지로 충고했는데, “독서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t cannot be that the people should grow in grace unless they give themselves to reading)고 단언했다. 또한 많이 알면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는 것 (A reading people will always be a knowing people)이라고 하면서 “읽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아는 것이 없는 사람” (A people who talk much will know little)이라고 한 것을 보면 웨슬리는 죽는 순간까지 설교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규정하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51]](#footnote-51)

최초의 연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설교방법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est general method in preaching?)라고 묻고 다음과 같이 정립해서 끝까지 실천하려고 했다: 1) To invite 초대하고); 2) to convince (확신을 주고); 3) to offer Christ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4) lastly, to build up (마지막으로 세워준다).[[52]](#footnote-52)

1. **웨슬리의 설교자 교육**

1749년 2월 말 경에 킹스우드 (Kingswood)에 도착하여 특히 사순절 기간에 설교자나 청지기 등 지도자들 17명을 교육시켰다. 한 그룹은 피어슨 주교 (Bishop John Pearson, 1613-86)의 <기독교 신조 해설> (*An Exposition of the Creed*)을 읽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알드리치 (Henry Aldrich)의 <논리학> (*Artis Logicae Compendium*)을 읽도록 했다.[[53]](#footnote-53) 웨슬리는 그 당시에 라틴어본을 사용했는데, 1년 후 에 <논리학> (*A Compendium of Logic*)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여 출판했다.[[54]](#footnote-54)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는 자신이 만든 팜플렛 <행동과 말을 위한 규칙들> (*Rules for Action and Utterance*)를 읽혔다.[[55]](#footnote-55)

그리고 나중에 그 내용을 열두 페이지로 요약하여 <설교자들을 위한 발음과 제스처에 대한 안내> (*Directions Concerning Pronunciation and Gesture*)란 제목으로 출판하여 설교자들을 교육할 때 사용했다. 타이어만은 그 내용의 일부만 요약하여 소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잭슨의 총서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200주년 총서 중에서 아직 출판되지 않은 15권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56]](#footnote-56) 웨슬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교자들을 교육했는지,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경계했는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삶과 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오늘날에게 유용하기때문에 정리해보자:

웨슬리는 모든 설교자들, 특히 젊은 설교자들이 나쁜 것들을 따라하며 습관이 되기 전에 들기 전에 처음부터 연습하라고 했다. 설교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분명하게 발음하는 것 (to have a clear, strong voice … so as to be heard by every person in it)이라고 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이 국교회 사제나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the chief faults of speaking)를 일곱가지 지적하면서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 너무 크게 말한다 (The speaking too loud).
2.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한다 (The speaking too low). 크게 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방법이다.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소리내어 읽거나 말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3. 혼자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The speaking in a thick, cluttering manner). 그러한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고대 웅변가들이 한 것처럼 입에 자갈을 물고 소리내는 연습 (by repeating orations every day with pebbles in his mouth)을 해야 한다.
4. 너무 빨리 말한다 (The speaking too fast). 가장 흔히 발견되는 문제이다.
5. 너무 천천히 말한다 (The speaking too slow). 조금만 노력하면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이다.
6. 너무 산만하게 말하며, 목소리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The speaking with an irregular, desultory, and uneven voice, raised or depressed unusually or unseasonably).
7.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소리에 여러가지를 가미하는 것이다. 즉 여자 목소리 (womanish), 비명소리, 노래하듯 하는 소리, 속삭이듯이, 그런가 하면 괴상한 소리 (whimsical)로 말하는 것 등이다. 이상한 소리로 말하는 것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 말하듯이 설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소의 크기나 청중의 숫자에 따라 소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57]](#footnote-57)

그렇다고 하여서 웨슬리가 소리에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별도 항목에서 언제 소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은지 제안했는데, 무엇 보다도 중요한 원칙은 상황과 장소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하는 것이다. 그 외에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설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에서 지나친 것보다는 중간 정도로 (a medium between the extremes) 말하는데, 강요하지 말고 (to avoid all precipitation),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give the hearers time to think)을 주며, 특히 자신이 먼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설교하면 청중들도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58]](#footnote-58)

웨슬리는 제스처도 일종의 조용한 언어 (a silent language)라고 하면서 세밀하게 지도했다. 목소리는 자신이 들을 수 있어서 교정이 가능하지만 제스쳐는 자신이 말하는 동안에 볼 수 없어서 교정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거나 좋은 모델을 선정하여 따라하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해 조언을 들으라고 했다.

그 외에 꼭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설교할 때는 너무 자주 움직이거나 고정되어 있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청중을 바라보면서 하라, 입 모양을 이상하게하지 말라 (The mouth must never be turned awry), 입술을 자꾸 빨거나 깨물지 말고 (must not bite or lick your lips), 어깨를 들썩거리지 말고, 팔꿈치에 기대지 말라 (must not lean upon your elbow), 손뼉을 치거나 강대상을 치는 것을 하지 말라(never clap your hands, nor thump the pulpit), 손을 올리되 눈 높이 이상으로 올리지 말로 아래로 내릴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은데, 고대 웅변가들은 “손으로 떠는 수다” (the babbling of the hands)라고 말했다고 했다.[[59]](#footnote-59)

종합해 보면, 웨슬리는 설교자들이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는지 분명히 알리고 있다. 즉 자신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보다 형식을 따라하며 잘못된 것을 배우는 것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꾸미는 것을 가장 경계했음이 분명하다. 그 외에 설교자들에게 주름진 옷을 입거나 장식으로 치장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웨슬리 신학은 현장에서 그 내용이 실현되는 신학이다.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그것은 거룩한 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웨슬리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 신학은 신학으로만 존재하지 말고, 목회학이나 설교학이나 선교학 등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 **성직자란 어떤 존재인가? 설교자에 대한 정체성 정립**

1756년에 웨슬리가 출판한 문서들 중에서 특히 <성직자들에게 고함> (*Address to the Clergy*)에 자신의 삶과 신학을 그대로 표현했기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56년 초에 국교회 지도자들은 229페이지 분량의 책 <종교개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열광주의의 역사> (*The History of Modern Enthusiasm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Times*)를 출판하여 메도디스트들을 비판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쓴 것이다.[[60]](#footnote-60)

웨슬리는 외딴 지역 (Epworth)에서 38년간 지역교회 목회를 하다가 1735년 4월 25일에 7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마당에 묻힌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철저하게 배웠다.[[61]](#footnote-61) 또한 국교회의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가 1735년에 출판한 <국교회의 젊은 성직자들에게 하는 조언> (*Advice to a Young Clergyman by a Divine of the Church of England*)을 통해 배운 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립된 내용을 50세가 넘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했다.[[62]](#footnote-62)

웨슬리는 자신을 포함하여 성직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성직자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Whar manner of men ought we to be?)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목회자라면 분명한 이해 (a good understanding)와 명확한 사태 파악 (a clear apprehension), 건전한 판단력 (a sound judgment),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a capacity of reasoning with some closeness) 은사 (gifts)가 있어야 하며, 현장에서 우매한 사람들의 우매한 질문에 답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하며, 좋은 기억력 (a good memory)을 갖추고 있어야 읽은 것이나 대화했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진리에 도달하는 지식이 된다고 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이나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무슨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고 (a knowledge of his own office, … the important work to which he is called), 두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인데, 본문 안에서 모든 단어와 문장의 뜻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scripture interpretes scripture) 때문에 서로 비교하며 잘못된 뜻과 정확한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로 중요한 것이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로 세상 역사, 과학적 지식, 그리고 세상 현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섯번째로 초대 교부들, 그리고 좋은 주석들을 참고하라고 했다. 일곱번째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더 필요한 것은 신중함 또는 상식 (prudence or a common sense), 그리고 잘 배운 성품 (a good breeding)이 필요하다고 했다.[[63]](#footnote-63)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좋은 목소리 (musical voice)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필요한 것은 오직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ought to glory God and to save souls from death)고 분명히 했다. [[64]](#footnote-64)

후반부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이 그러한 지식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라 (Let us each seriously examine himself)고 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으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돈을 더 많이 추구하는 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65]](#footnote-65)

 자신과 동료 메도디스트들을 비판한 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웨슬리가 준 답변은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을 갖추고, 세상에서 타오르는 사랑(burning love)과 세상을 비추는 거룩 (shining holiness)에 참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비 이성적인 신비주의자나 무지한 광신주의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열정이 없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매우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남다른 열정으로 가득찬 열광주의자들인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국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아닌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다.

1. **메도디스트 설교자들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

마지막으로 웨슬리와 메도디스트 설교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메도디스트 설교자들과의 갈등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세가지만 언급하면 첫째는 웨슬리 형제와 동료 설교자들과의 갈등 문제이고, 두번째가 평신도 설교자들과 안수 받은 설교자들과의 갈등 문제이고, 세번째가 평신도 설교자들의 자격 혹은 지적 수준에 관한 것인데 모든 문제가 웨슬리의 말년에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웨슬리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 주제에 집중하며 두번째와 세번째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1778년 11월 1일은 메도디스트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즉 소위 “새로운 씨티로드 채플” (the New Chapel in the City Road)을 개원한 날이기때문이다. 1777년 4월 21일에 머릿돌이 세워진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물이 완공된 후 웨슬리는 “꽤 괜찮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건물이다. 하지만 파운더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It is perfectly neat, but not fine; and contains far more people than the Foundary)고 평가한 후 모닝채플 (Morning Chapel)과 합치면그 근교 토튼햄 코트 로드 (Tottenham Court Road)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의 본부격인 테버나클 (Tabernacle)과 비슷한 크기라고 한 것을 보면, 웨슬리는 마음에 윗필드의 활동과 비교하면서 그의 활동이 확장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같다. 그날 웨슬리는 성전 봉헌식때 한 솔로몬의 기도 (왕상 8:22; 대하 6:12)와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14400명에 대해 (계 14:1) 언급하며 설교했다.[[66]](#footnote-66)그 건물은 “Wesley’s Chapel” (웨슬리 채플)이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메도디스트들만을 위한 새로운 채플이 생김으로서 몇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다음의 안수 받은 네명, 즉 챨스 웨슬리, 코마스 콕, 존 리차드슨 (John Richardson), 존 아브라함 (John Abraham) 외에 평신도 설교자들은 그 곳에서 주중 외에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고 했기때문이다. 1776년에 뉴채플 건립과 운영 계획이 확정될 때 이미 “오직 감독의 손가락이 그들의 머리를 터치하지 않았다” (Their heads had not been touched by a bishop’s fingers)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렇다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67]](#footnote-67) 그런데 뉴채플이 봉헌되기 몇 달 전에 런던교구 (the Rondon Circuit)로 임명받은 평신도 설교자들, 즉 존 포슨 (John Pawson), 토마스 랜킨 (Thomas Rankin), 토마스 테넌트 (Thomas Tennant), 페터 제이코 (Peter Jaco)는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안수 받은 네명보다 더 설교를 잘해도 예배 인도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격렬하게 항의했고, 안수 받은 콕이나 리차드슨을 포함한 다른 평신도 설교자들도 그에 동조했다.

사실 그러한 결정은 뉴채플에서 인도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브리스톨에서 런던으로 이주한 챨스가 고집스럽게 주장한 것인데 그는 형에게 편지하여 자신의 결정에 반대하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위험할 정도로 교만하다고 평가하며 형이 나서서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평신도 설교자인 포슨 (Mr. Pawson)이 쓴 편지는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에 의하면 챨스는 형과 달리 설교가 “무미건조하고, 생명이 없이” (dry and lifeless) 하면서 자신보다 설교를 잘하는 평신도 설교자들을 시기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햄슨이 (Mt. John Hampson) 뉴채플에서 설교하겠다고 하자 찰스가 반대하며 그를 “a grievous wolf” (욕심많은 늑대)라고 부르며 형과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양떼를 분열시킬 사람이라고 분노했다고 전했다.[[68]](#footnote-68) 평신도 설교자들에게 더 관대했던 웨슬리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경계했던 찰스에게도 그 문제는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외부로부터 메도디스트 평신도 설교자들이 무지하고 자격이 없다는 비판 외에 메도디스트 공동체 내에서도 웨슬리의 지도를 벗어나는 일, 갑자기 죄에 빠지는 일, 그런가 하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교육과 생활비를 지급하는 일 등 웨슬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가운데 설교자들이 병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하자8월 4일날 리즈에서 개최된 연회에서 “왜 우리 설교자들 중에서 자주 신경쇠약에 걸리는가” (Why do so many of our preachers fall into nervous disorders?)란 질문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연회는 그에 대한 처방으로 나태와 무절제 (indolence and intemperance)를 피하라고 했고, 설교자가 된 이후로 운동이 부족하니 매일 운동을 할 것과 술이나 담배 등을 피하고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밤 10시 전에 눕고, 오전 6시 전에 일어나라고 권했다.[[69]](#footnote-69)

 안수받은 설교자들과 평신도 설교자들과의 관계는 웨슬리 이후 200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 웨슬리안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즉 웨슬리가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임명하여 부족한 사역자들을 보충했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이기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있어서 선구자가 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평신도들을 설교자로 임명하여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웨슬리안인지, 더 이상 평신도 설교자들 세우지 않고 오히려 설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변질된 웨슬리안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웨슬리안 신학교가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것 외에 학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반 웨슬리안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웨슬리안 설교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빠졌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주의자들이었고, 자신들이 선포하는 높은 수준의 복음과 자신들의 삶과의 괴리로 인해 생긴 불안현상은 아닐까?

1. **설교에 대한 웨슬리의 생각**
2. 성경만 읽는다면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마라

1766년 연회는 리즈 (Leeds)에서 8월 12일날 시작되어 4일간 진행되었는데, 그 때 웨슬리는 설교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밝혔다. 왜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가 (Why are we now more knowing?) 묻고, 그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 (Because we are idle) 이라고 했다. 그리고 말을 줄이고 읽는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일에 실패하면서도 자신이 왜 실패하는지 깨닫지 못하는데 (I fear there is altogether a fault in this matter; and that few of us are clear), 그렇게 악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라 (We must, absolutely must, cure this evil, or give up the whole work)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악한 일을 치유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익한 책을 읽으라. 주로 아침에 또는 하루중 최소한 5시간씩 책을 읽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성경만을 읽고 오직 성경만을 듣게 만든다면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조지 벨이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는 성경도 읽지 않고 다른 어떤 책도 읽지 않게 되었다 (Read the most useful books, and that regularly and constantly. Steadily spend all the morning in this employ, or at least five hours in twenty-four. “But I read only the Bible. Then you ought to teach others to read only the Bible, and, by parity of reason, to hear only the Bible. But if so, you need preach no more. Just so said George Bell. And what is the fruit? Why, now he neither reads the Bible nor anything else). [[70]](#footnote-70)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웨슬리가 6월 5일날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크든 작든 모든 면에서 성경을 따른다” (My ground is the Bible. Yea, I am a Bible-bigot. I follow it in all things, both great and small)고 선언한 것과 연관을 지어 이번에는 왜 그에 반대되는 것처럼 성경만을 읽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71]](#footnote-71) 1766년은 웨슬리가 63세가 되는 해이다. 언제 죽을지, 혹은 언제 은퇴해야 할지 준비해야 하는 때에 웨슬리는 그동안 혼란스럽고, 종종 문제를 야기시켰던 잘못된 문제를 교정하고 있는 것이다.

1. 인간의 한계를 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설교자

1778년9월 1일날 티버튼 (Tiverton)에 갔을 때 만난 한 설교자는 7년에 한번씩 자신이 쓴 설교를 모두 태워버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더 나은 설교를 쓰기위해서라고 했다. 자신이 7년전보다 더 나은 설교를 쓸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20여년 전에 쓴 “대법정” (The Great Assize)과 “돈의 사용” (The Use of Money), 그리고 45년 전에 쓴 “마음의 할례”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보다 더 잘 쓸 수 없기때문이라고 했다.[[72]](#footnote-72) 웨슬리는 설교자들에게 끊임없이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라고 독려했지만, 역사의 한 순간에 계시와 같이 주어진 통찰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때문이었다.[[73]](#footnote-73) 웨슬리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히 알고 있는 설교자였다.

1. **설교자들의 자세**
2. **내용보다 겉으로 치장하는 것에 대해**

1782년 연회는 8월 6일날 런던에서 개최되었는데, 다시 한번 메도디스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집중했다.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할 것과 아울러 주일 헌금을 작정하도록 했으며, 설교자들도 머리를 지나치게 가꾸거나 가발을 쓰는 것 (to powder their hair or to wear artificial curls)이 옳지 않다고 했다.[[74]](#footnote-74) 특히 지난 해 연회에 이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병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Money lovers are the pest of every Christian society. They have been the main cause of destroying every revival of religion. They will destroy us, if we do not put them away).[[75]](#footnote-75)

웨슬리가 84세가 되던 해인 1787년에 이후 부터 웨슬리는 설교와 기존에 발표했던 것들을 필요에 의해 재판 혹은 교정하여 출판하는 일 외에 창작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알미니안 잡지를 통해 6개의 새로운 설교를 발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더 나은 길” (More Excellent Way)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기를 치장하고,카드 놀이를 하고,극장에 가고,춤을 배우는 등 세상적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말고, 시나 소설을 읽고, 음악이나 철학 등 고상한 것을 배우는데 힘쓰라고 했다. 무엇보다도 돈 사용에 있어서,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돈은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으며 영생을 얻는 영적인 삶이라고 했다.[[76]](#footnote-76)

1789년에 웨슬리의 비서로서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던 미스 리치 (Miss Ritchie)가 동료 디킨슨 목사 (Rev. Peard Dickenson)의 부인에게 8월 3일날 편지하여 “메도디스트들 가운데 복장이 점점 심각해지는 악” (We all lament dress as a growing evil among the Methodists)이라고 표현하면서 웨슬리도 평소에 설교자들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주 언급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킨슨 목사가 평소에 부와 사치의 상징인 주름잡힌 셔츠 (ruffles)를 입는 것을 웨슬리가 못 마땅해 하니 아내로서 남편이 그런 옷을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웨슬리는 메도디스트 설교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역자들과 그 자녀들까지 검소하게 살면서 모범을 보이도록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77]](#footnote-77) 연회는 웨슬리의 허락 없이 책을 출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 **열정, 부지런함에 대해**

웨슬리는 연회를 마치고 8월 5일날 뉴왁 (Newark)으로 가서 7일날 런던으로 돌아갔다. 런던에서<알미니안 잡지> (*Arminian Magazine*) 공동 편집장인 올리버스 (Thomas Olivers)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일을 한 후 오후 7시에 런던을 떠나 밤새 달려 다음날 오후에 브리스톨에 도착했다.[[78]](#footnote-78) 그리고 인근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트루로 (Truro)에서 오전 6시에 설교하기 위해 8월 27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 출발한 경우나 31일날도 엑스터 (Exeter)에 오후에 도착하기 위해 그날도 역시 새벽 3시에 출발한 경우처럼 웨슬리는 어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때로는 밤새 달리거나 새벽 일찍 출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79]](#footnote-79)

9월 5일에 브리스톨에 도착하여 한달 간 지내는 동안 9월 16일날 조카 새뮤얼 웨슬리에게 편지하여 밤 10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날 것과 토마스 아켐피스의 책과 그레고리 로페즈의 생애 (the Life of Gregory Lopez) 등이 아버지의 서재에 있으니 읽으라고 권했다.[[80]](#footnote-80) 브리스톨을 떠나 10월에 런던에 도착하여 이제 하루에 두번 이상 설교하기 어렵다 (I cannot easily preach above twice a day)고 했다. 그러나 런던에서 지내는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 강단으로부터 거부당하곤 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다 수락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 요청이 많다 (I have now more invitation to preach in churches than I can accept of)는 것이었다.[[81]](#footnote-81)

1. **설교자들의 글쓰기와 언어생활에 대해**

1788년에 85세가 된 웨슬리의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책을 읽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더 이상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다만 설교 외에는 이미 출판된 것들을 편집하는 일 정도만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1781년부터 발행되는 알미니안 잡지에 1775년 이후 쓰여진 설교들 총 42편을 발표해 왔는데, 그 설교들 외에 다른 설교들을 포함하여 총 56편의 설교들을 묶어 전 4권으로 출판했다. 그렇게 한 목적은 다른 평신도 설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리적 표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뜻에서 설교집의 서문에서 설교자들의 글쓰기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조언을 했다. 즉 자신도 한때는 한껏 멋을 부리면서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가장 평범한 문체로 쓴다고 했다.[[82]](#footnote-82)

웨슬리는 1765년에 젊은 설교자로서 말을 할 때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고,” 글을 쓰려면 요한 1서처럼 평범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때문이다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I John 4:19)”라고 말씀 한 것이 모든 복음적 내용의 핵심을 드러내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탁월한 표현이라고 했다.[[83]](#footnote-83) 그런데 그 설교집에 포함된 설교들을 보면 평소에 웨슬리가 한 설교들보다 더 많은 인용을 하면서 설득력을 더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과거처럼 신학적인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각종 도전에 성경의 기르침대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는 덜 신학적고 더 실제적인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84]](#footnote-84)

1. **웨슬리의 설교는 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나?**

사실 웨슬리보다 휫필드가 더 탁월한 언변가이며, 목소리 등 더 널리 알려졌다. 초기에 메도디스트 운동의 지도자는 웨슬리보다는 휫필드라고 알려졌다. 야외설교도 그가 먼저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가 메도디스트 운동의 리더가 되고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분명한 확신, 즉 신학이 있었다. 그 중 핵심 내용은 본질이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안주하는 기독교 신학의 맹점을 회개, 중생, 성화 등 발전적으로 구원론을 제시했다. 웨슬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본문: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히 12: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Make every effort to live in peace with all men and to be holy;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NIV, NRSV, KJV).

막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놀랍게도 회개를 믿음보다 먼저 놓았다.

갈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working through love, NRSV).

둘째, 설교 현장에서 많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울부짖고, 쓰러지고, 몸을 떠기도 하고, 핍박 중에 기적적으로 모면하고, 그 자리에서 티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등 이적이 일어났고, 즉시 구원받고 본질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 이 일에 대해 휫필드나 형이나 동생 찰스 등 측근들도 염려하거나 비판했다.

셋째, 믿을 수 없는 거리를 이동하며, 지치고 아픈 모습 등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단에 섰다. 그 영적 권위가 대단했다. 심방을 가서 몇시간 동안 기도와 찬송을 하며 영적 싸움을 했다.

넷째, 옥스포드 대학 링컨 칼리지의 펠로우로서 학문적 수준,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해 얻은 방대한 지식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설득력있게 들렸다. 그의 영성과 지성과 열정은 그의 설교를 능력있게 만들었다.

다섯째, 찬송을 불렀다. 당대에 누구도 하지 않던 예배 방법이었다.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가사와 곡을 그대로 불렀다.

여섯쩨,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장하여“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에 이르라고 촉구했고 설교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을 살아 있는 동안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attainable)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마치는 말>**

웨슬리가 설교자들에게 요청한 바와 같이, 웨슬리가 그렇게 살며 현장에서 실현한 바와 같이 웨슬리의 생애와 설교는 상상할 초월할 정도의 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곧 그의 신학의 내용으로 발전했다. 웨슬리에게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계시이다. 웨슬리에게 설교와 학문은 다른 것이 아니기때문에 결코 분리되거나 어느 한 쪽이 경시되어서는 않될 것이며 오히려 상호 협력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안 설교자가 된다는 뜻과 웨슬리안 학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입문서로 보기에 유익한 몇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나눔의 기쁨을 마치려 한다. 이미 본 논문에서 언급한 연구서 외에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으면 웨슬리를 바람직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틀러(Albert C. Outler)가 이전에 쓴 논문들을 편집하여 놓은 <웨슬리 신학의 유산> (*The Wesleyan Theological Heritage*)과 <존 웨슬리: 프로테스탄트 사상 문고> (*John Wesley: The Library of Protestant Thought*).[[85]](#footnote-85) 마틴 슈미트 (Martin Schmidt)의 <존 웨슬리: 신학적 전기 상, 중, 하*>*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vol. 1 and 2). 김덕순, 김영선 공역으로 은성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86]](#footnote-86) 물론 웨슬리 신학 연구를 위한 가장 획기적인 자료는 <200주년 기념 웨슬리 총서>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이다. <200주년 기념 웨슬리 총서>는 웨슬리안 메도디스트 교회가 미국에서 감독교회로 공식 출발한 해인 1784년으로부터 200주년이 되는 해인 1984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다. 웨슬리의 설교, 저널과 일기, 신학적 저술, 편지, 그리고 찬송 집 증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자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색인이나 각주를 제공해준 학자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최근에 출판된 허천회 박사의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은 웨슬리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신학을 발전적으로 설명했고, 원문과 번역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산만하게 인용되었던 자료들을 <200주년 기념 웨슬리 총서>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로 통일했기때문에 학문적으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 이후 미국의 메도디스트들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미국 내에서의 웨슬리안 메도디즘의 발전과 분열 등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그 이후 한국에 소개된 웨슬리 신학이 어느 전통의 웨슬리 신학인지 볼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성결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웨슬리 신학 전통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다.

**<설교자들에게 드리는 선물: 설교자 웨슬리를 볼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1. **30대 초반에 조지아 (Georgia) 선교지에서**

우리는 이미 웨슬리가 죠지아 선교지로 가면서부터 만난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들이나 쟐츠버거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독일어를 공부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웨슬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즉 영어를 전혀 못하는 독일인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권에 살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웨슬리는 토요일날 저녁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스페인계 유대인들 (Spanish Jews)을 만났는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 1737년 4월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87]](#footnote-87) 그런가 하면10월 달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로 기도문이나 신약성경을 읽어주었다.

웨슬리가 주일날 하루만에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렸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일 새벽 5-6시 반까지 영어 예배, 이탈리아어 예배는 오전 9시에,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 12시 반까지 영어 2부 예배, 불어 예배는 오후 1시에 시작해서 한시간 안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친 후 오후 3시에 영어예배를 드린다. 그 때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한다. 그리고 오후 6시에 모라비안들이 독일어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때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참석한다.[[88]](#footnote-88) 종합해보면, 주일날 하루에 4개 언어로 6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다. 이 열정과 노력을 본 받아야 할 것이다.

1. **39세 때 아버지의 무덤석 위에서**

1742년 6월 6일 토요일날 고향 엡워쓰 (Epworth)에 도착했다. 그리고 주일날 아버지가 38년 동안 목회를 하고 72세에 죽어서 묻힌 곳 (1696-1735년까지), 자신도 한 때 부 교역자로 사역했던 성 앤드류 교회 (St. Andrew’s Church)를 7년 만에 방문해서 기도를 읽거나 설교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담임목사인 롬리 목사 (Rev. John Romley)는 한 때 아버지의 부교역자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욥기 주석의 필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열광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 웨슬리 일행중 테일러 (John Taylor)는 오후 6시에 교회 마당에서 설교한다고 알렸고,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엡워쓰 역사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렸다.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을 거절당한 웨슬리는 교회 마당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석 위에서 (upon my father’s tombstone),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롬 14:17)이라고 설교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주변의 타운들을 순회하며 설교하면서 아버지의 무덤석 위에서 8일동안 설교했다. 11일날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 설교하니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기도 했고,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인 13일 주일날엔 엡워쓰 주변에서 몰려 와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였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설교했다.[[89]](#footnote-89)

웨슬리의 야외설교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중 하나는 아버지의 무덤석을 강단 삼아 설교한 장면일 것이다. 그 일에 대해 웨슬리는 1747년 3월에 스미스씨 (John Smith)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의 교회 강단에서 3년 동안 설교한 것 보다 아버지의 무덤에서 3일 동안 설교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 (I am well assured that I did far more good to them [my Lincolnshire parishioners]by preaching three days on my father’s tomb, than I did by preaching three years in his pulpit)고 회고했다.[[90]](#footnote-90) 그 후 엡워쓰에 갈 때마다 웨슬리는 아버지의 무덤석 위에서 설교해야만 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의미있는 강단이라고 생각한다.

1. **동생 찰스가 죽었을 때**

1788년3월 29일날 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때 웨슬리는 영국 중서부 지역의 슈르스베리 (Shrewsbury)에서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런데 부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웨슬리가 있어야 할 주소가 잘못되어 당시 매클스필드 (Macclesfield)에 있던 웨슬리가 부고를 받았을 때는 묻히기 하루 전인 4월 4일 금요일 이었는데 웨슬리는 그의 저널에서 동생의 죽음에 대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다음 날에 대한 기록도 없고, 다만 주일인 6일날 교회에서 설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91]](#footnote-91) 그러나 사실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웨슬리는 30분 만에 제수씨에게 편지를 썼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이 복되도다”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th taken away;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라고 위로하면서 앞으로 미망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92]](#footnote-92) 결국 하루 뒤에 있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웨슬리는 예정된 일정을 따라 동생과는 더 먼쪽으로 이동해 갈 수 밖에 없었다.[[93]](#footnote-93)

2 주 후에 웨슬리는 볼톤(Bolton)의 신도회에서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챨스의 유명한 찬송 “씨름하는 야곱” (wrestling Jacob)을 부르자고 제안한다.[[94]](#footnote-94) 그리고 교인들과 찬송을 부르던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가사에 이르자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나의 친구들은 다 가고 (My company before is gone)

나는 홀로 당신과 함께 남았네 (And I am left alone with Thee)

웨슬리는 강대상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그 순간청중들도 부르던 찬송을 멈췄다. 웨슬리는 한참 후에야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 설교를 이어갈 수 있었다.[[95]](#footnote-95) 설교는 절대적 순종이며 고독과의 싸움이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실현이다.

1. Henry D, Rack, ed. *The Methodist Societies: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Nashville: Abingdon Press, 2011), 10: 352. 이하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로 표기. [↑](#footnote-ref-1)
2.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378, 424. [↑](#footnote-ref-2)
3.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364-65. [↑](#footnote-ref-3)
4. Albert Outler, *Sermo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3:334-46. 이하 Outler, *Sermon*로 표기. [↑](#footnote-ref-4)
5. Outler, *Sermons,* 3:347-60. [↑](#footnote-ref-5)
6. Outler, *Sermons,* 3:361-72, 374-83. [↑](#footnote-ref-6)
7. Frank Baker, *Letters* (Nashville: Abingdon Press; first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Clarendon Press, 1980-82), 25: 157-9. 이하 Baker, *Letters* 로 표기. 불가타 (Vulgate) 성경은 4 세기때 제롬 (Jerome, 347-420)이 편집한 라틴어 성경이다. [↑](#footnote-ref-7)
8. Luke Tyerman, *The Life and the Times of the Rev. John Wesley, M.A., Founder of the Methodists*, 3 vols. (London, 1870), 1:54. 이하 Tyerman, *John Wesley*로 표기. John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Greenville: Ambassador International, 2006; originally published at Lomdon in 1886), 45-6. 이하 Telford*, The Life John Wesley* 로 표기*.* Maximin Piette, *John Wesley in the Evolution of Protestantism* (New York: Sheed and Ward, 1938; in Franch 1925), 266. 이하 Piette, *John Wesley*로 표기. Kenneth J. Collins, *John Wesley: A Theological Journe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39. 이하 Collins, *John Wesley* 로 표기. [↑](#footnote-ref-8)
9. Nehemiah Curnock, ed.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M.,* 8 vols (Epworth Press, 1938; 초판 1909), 1:48. 이하 Curnock, *The Journal* 로 표기. [↑](#footnote-ref-9)
10. Curnock, *The Journal*, 1:51. [↑](#footnote-ref-10)
11. Curnock, *The Journal*, 1:52. [↑](#footnote-ref-11)
12. “the sin of Sodome and her daughters” (겔 16:49), “the burial of a living man” (살아있는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 (Seneca, ? -65)의 말이다. See Curnock, *The Journal,* 1: 54-5. [↑](#footnote-ref-12)
13.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51. [↑](#footnote-ref-13)
14. 하지만 웨슬리가 60-70대를 지날 때의 일기에 의하면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만큼 웨슬리는 말년에 이르러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footnote-ref-14)
15. 웨슬리 저널의 편집자 커녹이나 200주년 총서의 저널과 일기의 편집자들은 이 내용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후대 역사가들이 전해주었다: Whitehead, *The Life of the Rev. John Wesley*, 235-6. Cf. Tyerman, *John Wesley*, 1:55-56;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49; Richard P. Heitzenrater, *The Elusive Mr. Wesley: John Wesley as Seen by His Own Biographer*, 1: 52. 이하Heitzenrater, *The Elusive Mr. Wesley*로 표기. [↑](#footnote-ref-15)
16.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51-52. [↑](#footnote-ref-16)
17. 수장령에 따라 웨슬리도 교회의 머리를 왕으로 인정하는 국교회의 교리와 법령에 충성한다고 서약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엡 1:22)라고 믿고, 설교하는 국교회 성직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는 왕”이라는 서약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footnote-ref-17)
18. 이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제 안수를 받지 않아도 펠로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웨슬리는 조제 안수를 받은 후 3년 후에 사제 안수를 받았다. 하지만 동생 찰스가 조지아 선교사로 떠나기 직전에 조제 안수를 받은 지 8일 만에 사제 안수를 받은 경우나, 후에 웨슬리가 메쏘디스트 내에서 조제 (deacon)안수 후 하루 만에 사제 (priest)안수를 한것을 보면 조제 안수 후 얼마 만에 사제 안수를 받아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See Martin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1:136. 이하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로 표기. [↑](#footnote-ref-18)
19. See “The Principles of a Methodist Father Explained” in Davies, *The Methodist Societies*, 9: 222. Cf. Tyerman, *John Wesley*, 1:57. [↑](#footnote-ref-19)
20.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1:96. [↑](#footnote-ref-20)
21.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23-146. Tyerman, *John Wesley,* 1:441-43. 평신도 설교자들 중에서 3명은 첫 연회 이후 웨슬리를 떠나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메쏘디스트로 살다가 메쏘디스트로 죽은 사람은 존 다운즈 (John Downes) 뿐이었다. [↑](#footnote-ref-21)
22.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24; Tyerman, *John Wesley,* 1:443. [↑](#footnote-ref-22)
23.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44. [↑](#footnote-ref-23)
24.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62-8. [↑](#footnote-ref-24)
25. 그때까지 웨슬리가 출판한 것들 중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다. [↑](#footnote-ref-25)
26. John Fell (1625-86), *A Paraphrase and Annotations upon all the Epistles of St. Paul* (London: R. Smith, 1702). [↑](#footnote-ref-26)
27. 1736년 3월 8일에 읽은 드레이크 (James Drake, 1667-1707)의 <해부학의 새로운 방법> (*Anthropologia Nova; or, a New System of Anatomy* )이다. See Ward and Hei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8:367-69 and 24:423. [↑](#footnote-ref-27)
28. John Quincy, M.D. (? – 1722),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약품 조제법> (*A Complete English Dispensatory in Four Parts*, London: A. Bell, W. Taylor, & J. Osborn, 1718). [↑](#footnote-ref-28)
29. John Allen (1660?-1741), <알렌 의사의 의학 개요; 또는 여러 명망 있는 의사들이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처방한 의술에 대한 일반적 요약> (*Dr. Allen’s Synopsis medicinae; or A Brief and General Collection of the Whole Practice of Physick. Containing the Opinions and Judgments of the Most Celebrated Authors, Concerning Diseases, Their Causes and Remedies*), 2 vols. (London: Pemberton & Medows, 1730). [↑](#footnote-ref-29)
30. Noel Antoine Pluche (1688-1761),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철학자들의 대화> (*Nature Delineated: Being a New Translation of Those Universally Admired Philosophical Conversations, entitled, Spectacle de la nature*, trans. Daniel Bellamy, 4 vols., London: J. Hodges, 1739). 웨슬리가 자연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제한 없이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더 나아가 웨슬리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때문이었다. [↑](#footnote-ref-30)
31. 휘스톤 (William Whiston, 1667-1752)은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뉴톤 ( Isaac Newton, 1643-1727)의 후임자로서 특히 뉴톤의 만유인력 법칙을 대중화시킨 당대 가장 명망있는 과학자인데, <지구에 대한 새로운 이론> (*A New Theory of the Earth*)의 저자이다. 그는 과학자요 수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신학자로서 “유대인 고대사” (Jewish Antiquities)등 요세프스(Josephus)의 전집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오늘날까지 그의 번역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삼위일체론이 이교도에서 유래한 교리라고 주장하는 등 당시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함으로써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베넷은 국교회 사제로서 유대교적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논쟁적 저서를 다수 출판했다. 웨슬리는 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See Baker, *Letters*, 25:412 note 1. [↑](#footnote-ref-31)
32. Jean Le Clerc (1657-1736). <세상의 시작부터 찰스 황제까지의 역사> (*A Compendium of Universal History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ign of Emperor Charles the Great*, originally written in Latin). 웨슬리는 1733년에 그의<형이상학> (*Metaphysics)*을 읽은바 있다. [↑](#footnote-ref-32)
33. John Davies (1569-1626), NosceTeipsum (1599).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시인데 웨슬리가 즐겨 읽는 시이다. See, Rack, *The Methodist Societies: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65, note 339. [↑](#footnote-ref-33)
34. 로마의 역사가 (Roman Historian). [↑](#footnote-ref-34)
35.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 (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의 철학 작품집. [↑](#footnote-ref-35)
36. John Fell이 쓴 오페라. [↑](#footnote-ref-36)
37. 카스텔리오 (Sebastian Castellio, 1515-1563)의(Castellio)의 <대화록: 예정론, 선택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하여> (*Dialogues of Castellio on Predestination , Election and Free Will*). 웨슬리는 이 내용을 1781-2년간 발행한 <알미니안 잡지>에 연재했다. See Tyerman, *John Wesley*, 3:367. [↑](#footnote-ref-37)
38. Desiderius Erasmus (1467-1536), <귀족들의 대화> (*Colloquiorum Familiarum Opus Aureumm*). [↑](#footnote-ref-38)
39. 그린의 목록에서 보여주듯이 웨슬리는 Vida의 시를 자주 읽었다. [↑](#footnote-ref-39)
40. Casimir Sarbiewski (1595-1640). 폴란드의 시인. [↑](#footnote-ref-40)
41. George Buchanan (1506-82), <시의 존재> (*Poemata quae extant*, Leiden: Elzevir, 1628). [↑](#footnote-ref-41)
42. <플라톤의 대화편> (Dialogues of Plato). 웨슬리가 플라톤의 대화편 등 그의 저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파이도 (Phaedo)는 선교지인 조지아에 가서 읽었다는 기록은 있다. See Ward and Hei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8:371. [↑](#footnote-ref-42)
43. 최초의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대왕 (Cyrus the Great, the first Persian Empire)에 대한 전기. 저자 크세노폰(Xenophon, ? – 354 B.C.)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로서 아덴의 군인이요 역사가이며 철학자였다. 웨슬리는 1742년에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에 대한 추억>(*Xenophone’s Memorable Things of Socrates*)을 읽고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호하는 논리에 감동을 받은 바 있다. See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9:268. [↑](#footnote-ref-43)
44. The Emperor Marcus Aurelius Antonius (B.C. 121-80), <명상록> (*Meditations*). 아마도 찰스가 먼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다. 웨슬리는 이 책을 추천한 후 10월에 읽었다고 했다. See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0:95 and note 64. [↑](#footnote-ref-44)
45.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Ignatius of Antioch, 35-107), <서신> (*Epistles*). 웨슬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포함시켰다. [↑](#footnote-ref-45)
46. St. John Chrisostom (347-407), <사제직에 대한 연구> (*De Sacerdotio*, *On the Priesthood*, 1712). 아버지가 존에게 1725년 1월 26일에 편지하여 성직 안수를 준비하면서 정독하라고 했는데, 아들은 잘 읽고 감동을 받은 것같다. See Baker, *Letters,* 25: 157-59. [↑](#footnote-ref-46)
47. Lancelot, ed., <진정한 삶에 대한 과거와 최근의 가장 뛰어난 시 선집> (*Epigrammatum Delectus ex Omnibus tum veteribus tum recentioribus Poetis; cum Dissertatione de vera Pulchristudine et adumbrate*). [↑](#footnote-ref-47)
48. Rack, *The Methodist Societies: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68 and note 364. John Buxtorf (1564-1629)의 책들 가운데 웨슬리가 어느 것을 의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789년 기록에 의하면 *Lexicon Hebraicum et Chaldaicum* (1607), *Thesaurus Grammaticus Linguae Sanctae Hebraeae* (1609), *Manuale Hebraicum et Chaldaicum* (1619), *A Short Introduction to the Hebrew Tongue* (1656) 등이 킹스우드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었다. [↑](#footnote-ref-48)
49.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340. [↑](#footnote-ref-49)
50.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335. [↑](#footnote-ref-50)
51. John Telford, ed.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A.M*., 8 vols (Epworth Press, 1931), 8:247. 이하 Telford, *Letters* 로 표기. [↑](#footnote-ref-51)
52.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139. [↑](#footnote-ref-52)
53. 웨슬리는 이 책을 1729년에 읽었다. See Vivian H.H. Green, *The Young Mr. Wesley: A Study of John Wesley and Oxford Methodist*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1), 310. 이하 Green, *The Young Mr. Wesley* 로 표기. [↑](#footnote-ref-53)
54.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0: 325; Tyerman, *John Wesley,* 2:90. [↑](#footnote-ref-54)
55.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0: 263. [↑](#footnote-ref-55)
56. Tyerman*, John Wesley*, 2:60-61;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London, 1872; Grand Rapids: Zondervan, 1958), 13: 518-27. 이하 Jackson, *The* *Works* 로 표기. See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 and Diaries*, 20: 263 note 25. [↑](#footnote-ref-56)
57. Jackson, *Works,* 13:518-21. [↑](#footnote-ref-57)
58. Jackson, *Works,* 13:521-5. [↑](#footnote-ref-58)
59. Jackson, *Works,* 13:525-7; 다음을 참고하라: 허천회,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20), 545-6. 이하 허천회,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로 표기. [↑](#footnote-ref-59)
60.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1:39; Tyerman, *John Wesley*, 2:228-30. [↑](#footnote-ref-60)
61. Telford, *The Life of John Wesley*, 72-3. Cf. Baker, *Letters,* 25: 291-92.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남긴 강력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aker, *Letters,* 26:288-9. [↑](#footnote-ref-61)
62. Tyerman, *John Wesley*, 1:105-7. [↑](#footnote-ref-62)
63. Jackson, *Works*, 10: 481-5. See also Tyerman, *John Wesley*, 2:268-9. [↑](#footnote-ref-63)
64. Jackson, *Works*, 10: 486. [↑](#footnote-ref-64)
65. Jackson, *Works*, 10: 490-500. [↑](#footnote-ref-65)
66.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3:111-12; Tyerman, *John Wesley,* 3:220. [↑](#footnote-ref-66)
67. Tyerman, *John Wesley,* 3:216-22. 예배 당 안에 특권층을 위한 좌석이 배정되어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이 차지하는 관행은 종교 개혁 이전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때에도 시행되던 제도였다. 루터도 그렇게 설계된 예배당에서 그 관행을 실시하며 예배를 인도했고, 또한 그들과 협력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다. 그 후 200년이 지난 웨슬리 때에도 그러한 관행은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고 웨슬리 채플 또한 그러한 관행에 따라 운영되었다. 하지만 웨슬리는 동료 지도자들과 신중하게 토론한 결과 런던의 “뉴채플이나 웨스트 스트릿 채플에서는 어느 누구도자기 자리를 주장할 수 없다” (none should claim any pew as his own, either in the new chapel, or in West Street)고 결정한 것은 상당한 진보라고 볼 수 있다. 후에 벤자민 로버트 (Benjamin Titus Roberts)는 웨슬리안 목회자로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동시에 예배당 좌석은 가난한 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free)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1860년 뉴욕에 설립된 교회가 바로 Free Methodist Church (자유 감리교회)이다. [↑](#footnote-ref-67)
68. Tyerman, *John Wesley*, 3:297-309, 312. [↑](#footnote-ref-68)
69.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483. [↑](#footnote-ref-69)
70.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339-40. [↑](#footnote-ref-70)
71.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 and Diaries*, 22: 42. [↑](#footnote-ref-71)
72. 각각의 설교가 출판된 해는 다음과 같다: “The Great Assize” (1758), “The Use of Money” (1760),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1733). [↑](#footnote-ref-72)
73.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3:104-5. [↑](#footnote-ref-73)
74.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 529. [↑](#footnote-ref-74)
75. Tyerman, *John Wesley*, 3:372. [↑](#footnote-ref-75)
76. Outler, *Sermons*, 3:263-77. Tyerman, *John Wesley*, 3:517-19. [↑](#footnote-ref-76)
77. Tyerman *John Wesley,* 3:621. [↑](#footnote-ref-77)
78. 당시까지 알미니안 잡지 편집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던 올리버스가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웨슬리는 그가 잡지를 “죽이고 있다” (murder)는 표현을 쓰며 안타까워 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를 해고하지는 않고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며 다른 일을 하도록 조치했다. See Telford, *Letters*, 8:160. [↑](#footnote-ref-78)
79.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4:149-54. [↑](#footnote-ref-79)
80. Telford*, Letters*, 8:171. [↑](#footnote-ref-80)
81. Tyerman, *John Wesley*, 3:587-90. [↑](#footnote-ref-81)
82.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4:13. [↑](#footnote-ref-82)
83. Tyerman, *John Wesley*, 3:521-22. [↑](#footnote-ref-83)
84. Outler, *Sermons,* 1: 47-8. [↑](#footnote-ref-84)
85. Albert C. Outler, ed., *John Wesley*. *The Library of Protestant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Thomas C. Oden & Leicester R. Longden, eds., *The Wesleyan Theological Heritag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1). [↑](#footnote-ref-85)
86. Martin Schmidt, *John Wesley: A Theological Biography* (Nashville: Abingdon Press, 1962), vol. 1 and 2. 본 서는 1953년에 독일어로 쓰였는데, 1962년에 영어로 번역된 책이다. 저자가 “웨슬리의 회심에 끼친 루터의 영향” (Die Bedeutung Luthers fur John Wesleys Bekehrung)에 대해 1938년에 논문을 쓴 이래 15년 만에 완성한 대작이다. 저자의 의도는 웨슬리 신학이 사실 루터의 신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루터파 경건주의적인 관점에서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재 평가하는 것이었다. [↑](#footnote-ref-86)
87.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8:178; Tyerman, *John Wesley,* 1:139. [↑](#footnote-ref-87)
88.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8:194. Cf. Tyerman, *John Wesley,* 1:161;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68. [↑](#footnote-ref-88)
89.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19: 273-77. [↑](#footnote-ref-89)
90. Baker, *Letters*, 26:237. Tyerman, *John Wesley*, 1:387-88. 아마도 웨슬리는 아버지의 무덤석을 강단 삼아 설교한 최초의 설교자 일 것이다. [↑](#footnote-ref-90)
91.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4:75. [↑](#footnote-ref-91)
92. Telford*, Letters*, 8:51. [↑](#footnote-ref-92)
93.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4:75. 결과적으로 웨슬리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사람, 즉 아내, 플렛쳐, 그리고 동생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 [↑](#footnote-ref-93)
94. 챨스의 “Come, O Thou Traveller unknown”이라는 시는 1742년에 “Wrestling Jacob”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찬송가로 작곡된 후 그 영적인 깊이에 비해 대중들이 부르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메쏘디스트들의 찬송가 외에 다른 어떤 찬송가에도 수록되지 못했다. 1887 년에 출판된 <초기 메쏘디스트 찬송집> (*The Primitive Methodist Hymnal*)에 3 부로 나누어 출판되었다. Cf. Rack, *The Minutes of Conference*, 10:646. [↑](#footnote-ref-94)
95. Tyerman, *John Wesley*, 3:527, note 2 에서 재 인용. 그의 저널에 나타난 볼톤에서의 일정을 보면 동생과 관계된 어떤 언급도 없이 다만 어린이 찬양대와 함께 매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 것만 기록하고 있다. See Ward and Heitzenrater, *Journals and Diaries*, 24:76-7. [↑](#footnote-ref-95)